**교제와 나눔**

**\*\*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과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ㆍ토요기도회:** 매주 토요일 07시 Teestube

**ㆍ오늘은 나라주일. 나라별로 말씀 중심의 교제를 나누세요**

**ㆍ종교개혁기념주일:** 10월 29일 주일

**ㆍ코디아넷연합수양회:** 11월 2일(목)~4일(토) DJH Xanten, 다음 주일까지 신청.

**주제:**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전12:1), **참가비**: 3-26세 70유로, 27세 이상 80유로

**강사:** 박다니엘 선교사, 김승천 목사, 이광열 목사 등 각 연령대 별 전문 강사들

**ㆍ매일성경 11,12월호 받아가세요.**

**ㆍBIBLE 12:** 성경 흐름 정리,12주 과정

매주 목요일 19시, 디아코니직업학교 1층 18번 교실

**ㆍ생일:** 이태영

**◆말씀일기 일정**

일/렘14:13-22 월/렘15:1-9 화/렘15:10-21 수/렘16:1-13

목/렘16:14-21 금/렘17:1-11 토/렘17:12-18 일/렘17:19-27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37독, 이미전 집사 1독)**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10월 15일** | **10월 22일** | **10월 29일** | **11월 5일** |
| **예배기도** | 권순아 | 김평님 | 김좌겸 | 박요셉 |
| **말씀일기** | 조선형 | 천춘자 |  | 이은지 |
| **안내위원** | 신형만,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권순아, 김평님 | | | |
| **애찬봉사** | 나라주일 | 밥상 셋 | 밥상 넷 | 밥상 다섯 |

35-43호 2017년 10월 22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 1:17)

주일 1부예배: 12:15

주일 2부예배: 14:00

주일 유초등부 예배: 14:00

주일 청소년부 예배: 13:30

토요기도회: 07:00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담임목사/ 손교훈**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협동목사/ 이광열** Mike Lee

☏ 0211-4166 3284 HP. 0157-7388 7498

**교육목사/ 이재용** HP. 0157-5346 6942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 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 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오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Eingang …………………………………………………………………………………......... | 다함께 |
| ※송영/Eingangslied ……………………………………………………………………………… | 찬양대 |
| ※찬송/Gemeindelied …………………………… 27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73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312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권순아 집사 |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Loblied ......…………………………….......………………………….......…………… | 조선형 교우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Predigt…............… 마태 25:1-30 …..….....……..….…. | 다함께 | |
| 설교/Predigt ……………...…..… **그 때에 천국은** ........……………… | 손교훈 목사 | |
| 찬송/Gemeindelied ………………………… 508장 ………………………………  합심기도/Gebet …………………………………………………………………………………  봉헌/Kollekte ……………………………………………………………………………………… | 다 함 께  인 도 자  다함께 |
| 교제와 나눔/Bekanntmachung ……............….................................................. | 인 도 자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 목사 |

**※는 함께 일어섭니다.**

**◈ 조선형 교우의 말씀일기 렘 11:8-12:6 “너 벌써 지친 거니?” ◈**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가 생각하는 정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절망감 속에서 따져 묻고 있다. 그가 처해 있던 상황에서 스스로 느끼는 무력감과 지침,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본인의 답답한 처지를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 하는 것이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는 조금은 특이하게 느껴졌는데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마치 “너 벌써 지친 거니?” 라고 물으시는 듯 하다. 너는 달리는 말과 경주를 해야 할 사람이고, 넘치는 강물에 뛰어 들어야 할 사람인데 고작 이만한 일에 지친 거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를 인정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경험했던 절망적이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본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유치하게도 내가 할 수 있었던 일들 중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소하는 것이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 하고 있다고 교만 가득했던 나는, 나에게 닥치는 일들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 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대했던 따뜻한 위로는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아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모두 지나가 버린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어떤 상황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벌써 지친 거니?”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그 이상의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해 본다.

**◈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돕는 곳 ◈**

▶스펙트럼 교회(이광열 목사)

▶'겨자씨' 모임(2세 및 2세 사역자 위해 기도 및 후원)

▶NRW 평신도연합회

▶유럽 기독교교육원: 어린이 연합 캠프, 청소년 연합 캠프(JC)

▶유럽 밀알 장애인 선교회(이명선 총무)

▶유럽 코스타(청년수련회) ▶유럽 크리스찬 신문(이창배 목사)

▶예장 유럽선교회 ▶우크라이나 임현영 선교사

▶장학 지원 ▶북한 선교 ▶디아코니 협력 후원

▶굶주린 이웃 돕기 (케냐 총게노 고아원, 이은용 선교사)

▶기타 구제 사업 ▶선교관 기금 마련